

사랑하는 바브나를 가진 영혼들의 자격요건은 지식이 많은 것이다.

오늘 밥다다는 어떤 자녀들이 헌신적인 사랑의 느낌을 갖고 아버지에게 왔으며, 어떤 자녀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서 성취를 얻기 위해서, 즉 고귀해지려는 의도를 갖고 그에게 왔는지를 보려고 자녀들 모두를 보고 있었다. 두 가지 유형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다. 사랑하는 감성을 지닌 자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랑의 결실을 행복, 평화, 지식, 사랑의 형태로 받고, 그들은 그만큼 행복해진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소개받은 후에도 신봉의 감정과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느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신봉의 감성은 맹목적인 믿음의 감정으로, 간접적인 만남의 느낌, 일시적인 이기적 사랑의 느낌이다. 지금 현재 지식을 토대로 한 자녀들의 사랑의 감성은 신봉의 길에서의 느낌보다 훨씬 더 고귀한데, 왜냐하면 신인 영혼들에게는 그것이 간접적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다. 인식은 있지만, 그저 신봉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인식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지식을 통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의 아버지로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을 가지는 것이고, 너희를 있는 그대로, 너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즉 너희가 아버지와 대등해지리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다. 너희 모두 그를 알지만, 신봉의 느낌을 토대로 그를 아는 것과 지식을 토대로 그를 아는 것의 차이를 너희들은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밥다다는 여러 자녀들의 사랑하는 감성을 보고 있었다. 비록 사랑하는 느낌을 통해 아버지를 알아봤다 해도 너희는 어쨌든 결실을 얻는다. 그러나 완전한 유산에 대해 온전히 권리를 차지하는 것과 그저 유산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천국에 대한 행운과 삶 속의 해방에 대한 권리는 사랑하는 감성을 가진 자들과 지식을 가진 자들, 양쪽 모두가 받는다. 유일한 차이는 지위의 성취에 있다. 양쪽 모두 행복해하며 “바바”라 하므로 “바바”라 부르고 바바를 이해하는 결실로 틀림없이 유산을 차지한다. 모든 이가 삶 속에서의 해방에 대한 권리를 차지할 만큼 가치 있게 되지만, 여덟 보석과 108명의 승리하는 보석들, 만 6천 명, 그 다음에 90만 명 사이에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다. 만 6천 명의 염주와 또 108명의 염주도 있다. 108명 중에는 8명의 특별한 이들도 역시 들어있다. 모든 이가 염주의 구슬이 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구슬이라고 불릴 것이다. 만 6천 명의 염주의 구슬들조차 행복해하며 도취감을 갖고 “나의 바바와 나의 왕국”이라 할 것이다. 너희가 옥좌에 대한 권리나 왕족 신분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는 것과, 왕가에 대한 권리나 왕족들과 연관을 가진 지위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

신봉의 느낌을 가진 영혼들과 지식이 많은 영혼들, 양쪽 모두 도취감을 가진다. 그들은 양쪽 모두 신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 아주 좋은 말을 한다. 사랑의 화신이므로 그들은 심지어 세상에 대한 의식을 모조리 잊기까지 한다. 그들은, “나의 것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아주 좋은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은 힘의 화신은 아니다. 너희들은 그들이 엄청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테지만, 만약 마야의 작은 장애라도 온다면 사랑하는 감성을 가진 영혼들은 지식의 힘이 부족한 탓에 금세 두려워질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 매우 행복한 노래를 부르다가 바로 다음 순간에 마야가 약간이라도 공격하면 행복의 노래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이 일을 어찌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일이 어찌 될까?”로 바뀔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왜?” 등등의 노래도 못지 않게 잘 부른다. 하지만 지식이 많은 영혼들은 끊임없이 그들 스스로를 아버지와 함께 하는 전능한 권위자 영혼 마스터라고 여기기 때문에 마야를 극복할 수 있다. 그들은 “왜? 무엇을?”이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감성을 가진 영혼들은 계속해서 단지 사랑의 힘으로만 전진한다. 그들에게는 마야를 직면할 힘이 없다. 지식이 많은 영혼들은 대등해지려는 목표와 함께 모든 힘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마야를 직면할

수 있다. 이제 너희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영혼인가, 또는 지식이 많은 영혼인가?”라고 자문해봐라. 아버지는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영혼들을 보며 여전히 기쁘다. 그들은 적어도 “나의 바바!”라고 함으로써 권리를 차지했다. 권리를 차지함으로써 그들은 가치 있게 되었다. 온전히 전액을 다 받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너희는 어쨌든 각자의 노력에 따라 원하는 만큼 한껏 앞자락을 가득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은 “나의 바바”라고 할 때 이미 너희가 열쇠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밥다다는 대양이기 때문에 다른 열쇠는 없다. 그는 끝이 없고 무한하다. 가져가는 자들은 가져가는 데 지친다. 공여자는 결코 지치는 일이 없는데 그가 해야 할 노력이 뭐가 있겠느냐? 그는 너희들에게 드리시기를 줌으로써 모든 권리를 준다. 심지어 받아 가는 자들도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은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전부 다 잃는다. 그렇게 되면 제 나약함 때문에 그것을 잃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잃고 나서 또 다시 얻고, 얻었다가 잃는 데 드는 노력 탓에 그들은 지친다. 주의 깊고 총명한 상태로 지낸다면 그들은 한결같은 성취의 화신이 된다. 예를 들어 황금시대에는 하녀들이 항상 너희를 섬기려고 함께 머문다. 마찬가지로 모든 힘과 미덕들은 아버지와 대등한, 그렇게 고귀하고 지식이 많은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동반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너희가 어떤 힘을 불러내든, 어떤 미덕을 불러내든, 그것은 “지 하지르” (네, 나의 주인님)라며 너희 앞에 대령해 있게 된다. 그렇게 자아의 군주인 자들은 세계 왕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한다. 그러니 너희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테지? 너희는 스스로 모든 힘과 모든 미덕으로 끊임없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한다. 라반이 어떻게 동반자들에게 도전하며, 자아의 주인인 브라민 영혼들이 어떻게 그들의 힘과 미덕에 도전하는지를 보여주는 연극을 상연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는 이미 자아의 주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너희는 필요한 때 이런 힘들을 사용할 수 없느냐? 나약한 왕에게는 아무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왕이 백성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다. 용맹스러운 왕은 모든 이가 그의 지시에 따라 일하게 만들고 이 왕국을 얻는다. 그러므로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고 나서 지치는 것은 너희가 부주의함을 나타내는 표시다. 아무도 복종하지 않는 왕을 뭐라고 부르겠느냐? 일부 어떤 이들은 “제가 관용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기억해냈습니다”라 한다. 그때 당시에는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해도 그것을 쓸 수는 없다. 이 말은 너희가 그때 당시에 그것을 불러냈지만 그것이 그 다음날에야 도착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것이 너희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냐? “그냥 일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너희가 가진 힘들이 너희에게 지시를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적시에 봉사하지 않은 봉사자에게 너희는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변함없이 자아의 주인이 되어 모든 힘과 미덕을 봉사에서 너희 자신과 모든 이를 위해서 써라. 이해하느냐? 단지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강력해져라. 앗차. 너희는 다양한 영혼들의 집회를 보며 행복하겠지? 마두반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많은 유형의 집회를 본다. 참으로 많은 다양한 그룹들이 온다. 밥다다도 역시 정원에서 다양한 꽃들을 보는 것이 즐겁다. 환영한다! 너희들은 쉬바의 행렬로 기억되는 기념식을 보고 있다. “바바, 바바”라 하면서 너희들 모두 여기에 왔다. 너희는 최소한 마두반에 도달했다. 이제 너희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 앗차.

항상 고귀한 권리를 차지하는 승리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모든 권리와 모든 힘으로 봉사하는 강력한 영혼들에게, 옥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정당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아비약트 밥다다가 여러 그룹을 만나심 .

편자브 지구 : 편자브 지구에서 온 너희들 모두 마하비르들이 아니냐? 너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고귀하며 지식이 많고, 아버지와 대등한 영혼들이 아니냐? 너희는 어떤 것에도 겁을 먹지 않는다. 최대의 공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너희들 모두 이미 죽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나는 아직도 이것 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 너희들은 모두 각자의 과제를 완수했고 이제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는 낡은 의상을 벗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움이 없다. 사실 너희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영혼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자들이고, 행복의 공여자의 자녀들이며, 슬플 때 공포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행복을 준다. 예를 들어 밤에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면 사방에 빛이 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슬플 때 행복을 주는 고귀한 영혼들이다. 이처럼 너희는 행복을 준다는 고귀한 느낌을 항상 가지느냐? 너희들은 끊임없이 행복과 평화를 줘야 한다. 너희는 평화의 공여자의 자녀인, 평화의 공여자들이다. 그러니 평화의 공여자들이 누구냐? 아버지뿐 아니라 너희들 역시 모두 그러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평화를 주는 평화의 공여자들이다. 너희는 평화를 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너희가 어떤 봉사를 하느냐고 묻는다. 그러한즉 그들 모두에게 너희가 특히 지금 이때에 매우 필수적인 과업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해줘라. 앗차. 사람들은 옷을 주고 음식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주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이에게 필수적인 것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봉사가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의 마음이 평온할 때 부도 역시 유익하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심지어 부의 힘마저 너희에게 괴로움을 끼친다. 이제 온 나라를 통틀어서 이것이 평화의 장소라는 것을 모든 이가 경험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평화의 물결을 퍼뜨려라. 여기에 와서 단 몇 분이라도 있으면 크나큰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소문을 그들이 남들에게서 듣게 해라. 이 소리가 어디에나 퍼지게 해라. 봉사의 이 장소가 평화의 모퉁이라는 소리를 퍼뜨려라. 이 소리가 온 사방에 퍼지게 해라. 어떤 영혼이 제아무리 평화롭지 못해도,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평화롭지 못한 지금 이때에 평화의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라. 그런 물결을 퍼뜨려라. 그것이 어떻게 퍼지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한두 영혼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경험을 줘라. 한 사람에서 그것이 두 사람으로 확장되고, 차츰차츰... 특히 평화롭지 못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평화의 경험을 줘라. 누가 너희와 접촉하든 그들에게 “평화를 경험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해라. 편자브에서 온 자들은 특히 이 봉사를 해야 마땅하다. 너희는 소리가 크게 들리게 만들 기회를 지금 가졌다. 영혼들은 지금 방황하며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들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탓에 그것을 찾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맞는 장소가 아님을 깨닫고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방황해왔다. 그렇게 배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너희가 장소를 쉽게 줄 수 없느냐? 이제는 이 봉사를 해라. 통행금지나 다른 무엇이 있어도 너희는 남들과 접촉하게 되지 않느냐? 너희와 접촉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험을 줘라. 그러면 그 영혼들이 소리를 퍼뜨릴 것이다. 한두 시간 정도라도 그들을 위해서 요가 캠프를 열어라. 아주 조금이라도 평화를 경험한다면 그들은 매우 행복해하며 너희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뭔가를 행하려는 목표를 가지면 너희는 그것을 행할 방법도 역시 찾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를 시범으로 보여주고 이름을 영광스럽게 빛내라. 지금 현재 편자브의 땅이 굳은 그 정도만큼 너희는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너희는 항상 더블 라이트한 천사로 너희 스스로를 경험하느냐? 합류시대의 최종 형태는 천사의 형태다. 브라민 생의 성취는 천사의 생활이다. 천사는 몸의 관계나 육신의 친척들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몸과의 관계, 그리고 육신의 친척들과의 관계를 다 끝냈느냐, 아니면 약간의 관계가 여전히 남았느냐? 아주 적은 애착의 미묘한 끈이라도 남아있다면, 너희는 저 위로 높이 날아올 수 없을 것이고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그러한즉 천사는 낡은 관계를 갖지 않는 이들이다. 너희의 생이 새로우므로 모든 것이 다 새로울 것이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직업 등 만사 모든 것이 새로울 것이다. 너희의 낡은 생에 대한 의식은 이제는 꿈에조차 올 수 없다. 너희가 아주 약간이라도 육체의식이 된다면, 그것은 약간이라도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아무 관계도 없다면 너희의 지각은 그리로 갈 수 없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너희는 그들과 아무런 연관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는 오직 관계 있는 자들만 기억할 뿐이다. 그러니 육체의식이 된다는 것은 육신의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몸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애착이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 뭔가 무거운 물건은 아무리 높이 던져 올려도 아래쪽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그래서 천사는 짐무게가 없이 가벼운 이라는 뜻이다. 산 채로 죽는다 함은 짐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빨리 그것을 끝내라. 안 그러면 때의 호루라기를 불면 모든 이가 날기 시작할 테지만, 짐을 짊어진 자들은 저 아래에 남아있을 것이다. 짐을 진 자들은 날아다니는 자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즉 아직도 미묘한 끈이 혹시 남아있지나 않은지 체크해라. 이해하느냐? 그러니 오늘의 특별한 축복, “너희는 굴레가 없는 영혼이다”라는 말을 기억해라. 너희는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들이다. “천사다운, 천사 같은” 이라는 말을 결코 잊지 마라. 너희 스스로를 천사라고 여김으로써 너희는 날아다닐 것이다. 축복의 공여자가 준 이 축복을 기억하면 너희는 항상 번영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라고 여기느냐? 브라민 생의 과제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너희는 이 과제를 결코 잊지 않을 테지? 너희가 매일 어느 정도로나 고귀한 영혼들의 고귀한 과제를 수행했는지 점검해라. 너희는 몇 명에게나 메시지를 전해주었느냐? 몇 명에게나 평화를 기부했느냐? 너희는 위대한 기부자, 메시지를 전해주는 축복의 공여자들이다. 너희는 직함을 몇 개나 가졌느냐? 오늘날 세상에서 누군가 제일 큰 직함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은 너희에 비하면 손아래다. 거기서는 직함을 주는 것이 영혼들이지만,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녀인 너희에게 직함을 주고 있다. 따라서 너희들의 여러 가지 직함을 모두 의식 속에 간직한 채 변함없이 그 행복과 그 봉사에 머물러 있어야. 그 직함을 의식함으로써 너희는 자동적으로 봉사를 기억할 것이다.

축복: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영혼이 되어 너희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까지도 집중하는 힘으로 변화시켜라.

브라민은, 즉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영혼은 다른 누구에게도 지배받을 수 없다. 그런 영혼은 나약한 성질이나 산스카르에 제어 당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성질, 즉 “스와 바브”란 자아와 남들에 대해서 영혼의식의 느낌을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한 성질에 제어 당할 수 없다. 너희들 본래의 영원한 산스카르를 인식하면 그것이 너희의 약한 산스카르를 쉽게 변화시킬 것이다. 집중력은 외부상황을 쉽게 변화시켜서 너희가 주인 단계의 자리에 안정해 머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솔로건: 화는 지식 많은 영혼에게 매우 큰 적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